

순천시 반값 임대아파트 추진

조곡행복주택, 공공임대 120세대 건립 가시화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 주거불안 해소

순천시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인 '반값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의 후보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곡 행복주택'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순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조곡동 193-3번지 일원에 건립될 '조곡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사회초년

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약 120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조곡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LH 자체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후보지 선정 심의를

위원회에서 선정됐다.

순천시는 향후 의회 승인 절차와 LH와의 업무협약 등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2월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내년 7월에 착공해 2022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복주택 건립을 통해 원도심 인구 유입으로 도시재생에 활력을 더하고 젊은 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농협보성군지부, 사회공헌·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업무협약

보성군자원봉사센터와 사회적 위기극복 협조 등

농협보성군지부(서희수 지부장)는 보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오모)와 30일 농협보성군지부 회의실에서 도농교류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도농교류, 농촌봉사활동, 재난재해 등 사회적 위기극복에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 붐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

임오모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 지원뿐

만 아니라 농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미래농업 이끌 청년창업농 육성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

고흥군은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신규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최대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과 창업기반 구축 지원, 농지구입과 영농시설 설치 등을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등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43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하여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등의 역량 강화 교육과 영농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현장기술지원단 운영했다.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선도농가 1:1 멘토-멘티를 통한 현장실습교육, 스마트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흥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이용한 세수 증대

광양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이용해 일일 52톤의 음식물류 쓰레기로 유기성 퇴비와 유분을 생산 판매해 6천1백만 원의 세수를 증대하고 있다.

광양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직접 유기질 비료를 생산 판매하고, 지난해부터 유분 분리기를 설치해 현재까지 음식물 폐수에서 약 170톤의 유분을 추출해 판매하고 있다.

시는 유기질 비료 생산 판매 수익금 5천1백만 원과 유분 추출 판매 수익금 1천만 원을 세입조치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 최종 승인

28만 시민이 만드는 박람회...한국판 뉴딜 성공모델로 육성 1000일의 대장정, '시민의 정원 제1호'로 시민과 함께 첫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9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10년 만에 정부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3월 3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재정부까지 모든 심의절차를 마치게 됐다.

국제행사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해 외국인 참여비율이 3% 이상(방문객 200만 명 이상)인 박람회의 경우 받을 수 있어 정부 승인을 계기로 국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23년 박람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일상 속 정원을 주제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된 정원 로드 조성된다.

'2023정원박람회'의 중심은 시민 누구나 도시에 본인의 흔적을 남기고 참여하는 시민주도 박람회로 이를 위해 지난 4월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박람회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람회 기획·운영·실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추진위원회를 확대하고 24개 읍면동별 시민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계적인 본보기로 육성할 계획이다.

1000일의 대장정 '시민의 정원 제1호'로 시민과 함께 첫발

순천시는 국제행사 승인을 기념하며 30일 저전동 도시재생 구역에 '시민의 정원 제1호'를 조성해 박람회 1000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 28만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특화정원을 24개 읍면동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31일은 순천시청 정문에 박람회 D-1000 카운터를 설치하고 국제행사 승인 축하 제막식을 갖는다.

소병철 국회의원과 정원박람회 주관부처인 산림청, 전남도 관계자를 비롯해 순천시장과 의

정원이 참석해 축하 덕담과 대시민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소한의 축하 전달로만 이루어질 예정으로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온라인 시민소통창구를 통해 축하 응원 댓글과 아이디어 페스티벌로 함께 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판 뉴딜의 성공모델로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 공간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지위, 나이, 성별, 소득, 인종, 종교 등과 관계없이 생활공간의 공평하고 안전한 이용을 중시하는 공간민주주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기존 단순한 꽃과 나무의 정원 조성을 넘어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정신적·육체적 치유라는 정원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며 정원박람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성공모델 육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제기됐다.

시는 이를 위해 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그린 경제로 전환, 정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한 경제·사회구조 대전환과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정원을 비롯한 인근 연꽃밭과 팔마체육관 일원을 녹색융합클러스터(특구)로 지정해 힐링과 건강, 웰빙 및 휴양, 정원산업, 미래 교육 융합 그린 디지털·뉴딜 선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발굴을 목표로 한 사업은 ▲대국민 건강 프로그램 시행 ▲문화·체육·관광 등 실감 콘텐츠 제작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반 시설 ▲숙박시설 건립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 물류체계구축 ▲잡월드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4차산업혁명체험클러스터 연계 스마트 직업훈련 및 이력관리 콘텐츠 등 미래교육 실현 ▲5G·AI 기반 운송혁신 등이다.

또 도심 전역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및 녹색 생태계 회복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